

#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만족도, 미래주거환경선호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fe Style and Housing Satisfaction, Future-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s among the College Students

김지현 · 광경숙\*\*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Kim, Ji-Hyun · Kwark, Kyoung-Sook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college students' life styles, housing satisfaction and future-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So the eventual purpose is to offer basic data of future-housing development. This study has a subject of 512 college students living in Jeonbuk province.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11.5 for Window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college students' life style showed higher in the self-confidence-directed and the home-directed types. And the college students' housing satisfaction showed higher in housing equipments. The life style and housing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ajor, their parents' academic career, fathers' occupation, average incomes, type of house. The college students' future-housing preference showed higher in housing equipments and environment.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school year, major, mothers' occupation, and type of house in the college students' future-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 College students' life style, housing satisfaction, and future-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one another. Housing satisfaction variable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life style and future-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 Partially, negative correlation was showed between life style and future-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

As a conclusion, college students' life style and housing satisfaction constituted important characteristics which could affect future-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 directly. These results should be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new generation's future-housing development.

Key Words : College Students, Life Style, Housing Satisfaction, Future-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s

## I. 서론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은신처를 만들며 이러한 은신처는 인간이 느끼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생활양식, 즉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은 생활의식, 생활행동, 태도 등의 복합체로서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갖는 생활의 표현양식이다(김정희, 2002).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집단구성원들이 동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 일반

적으로 주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자 할 때는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생각과 의식, 만족감과 가치관을 반영시킨다.

Gallogly(1974)는 주거선택과정을 하나의 조직적 의사결정과정으로 간주하여 가족의 사회 배경적 요인이 예상 지표로서 작용하고 여기에 개인의 동기와 가치관, 준거집단세력, 문화인류학적 배경 등이 작용하여 주거가 선택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주거만족이라는 평가에 의해 피드백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주거만족은 평가의 과정으로 평가의 결과가 피드백 되어 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거 환경은 거주자와 주택, 가구나 설비, 이웃과 지역

\* 본 연구는 2006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지원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Kwark, Kyoung-Sook

Tel: 063) 850-6587

E-mail: kskwak@wonkwang.ac.kr

사회까지 포함된다. 미시환경으로 불리는 주거는 인간을 둘러싼 전체 환경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주생활은 스스로가 환경의 일부가 되어 깊이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확인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과 환경은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생활은 주택이라는 공간적 구조물과 가족단위가 갖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배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주생활은 주택과 주거환경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가치관과 문화, 자원 및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주자의 의식구조, 가치관, 문화 규범, 행동 등은 주생활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주거는 거주자가 행동하고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치고 거주자의 생활양식은 다시 주거에 영향을 미친다(윤복자, 1994).

이상에서 볼 때 주거를 설계할 때 혹은 주거를 선택할 때 라이프스타일, 주거 가치관이 반영되고 이는 현재의 주거 만족도에 의해 피드백 되어 미래주거나 미래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한 요소씩 연구하기보다는 각 요소를 통합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주거 문화의 주역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 주거만족도, 미래주거환경 선호도를 각각 분석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논의함으로써 미래주거 양상과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주거 환경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Alport(1965)는 라이프스타일이란 개인의 생활방식을 매일매일 방향 짓고 종합하는 결과로 보았으며, Moore(1994)는 가족차원의 생활양식에 중점을 두어 여러 가지 상품이나 자원과 사건을 가족의 목표에 부합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Plummer(1974)는 라이프스타일은 개인과 가족의 요구와 능력을 잘 규정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고, 정복희와 박은주(1993)는 간이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정신과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체계가 일상생활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Fittzermans 등(1974)은 라이프스타일은 생활범주의 내용이며, 그 유형은 사용되는 상품, 사용하는 방

법, 사용에서 얻어지는 만족감과 생활수준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라이프스타일은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계층의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라이프스타일은 다양한 생활영역에 나타나며 생(生)의 신조 또는 가치관을 포함한 하나의 집단현상이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지역 등에 따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생활의식, 생활구조, 생활행동의 패턴화 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제시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는 생활전반이나 의·식·주생활 및 여가생활 등에 관한 연구가 일반적이다. 먼저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정빈과 박선형(1989)의 연구는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을 건전집합주의형, 내성적충실형, 소극침체형, 사회적적극형, 외향적자기충실형, 현실유행추구형, 써클몰입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족·의·식·주·구배·여가생활의 라이프스타일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한 윤복자 등(1994)은 서울시 중산층의 생활양식유형을 패션지향형, 실내장식지향형, 실용추구형, 식생활간편추구형, 취미지향형, 건강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은경과 박은순(1998)은 신세대 생활양식을 자기중심적감성문화, 발달된 영상매체와 통신문화, 국제적개방문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부련(1998)은 대구시내 거주하고 있는 30~40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소비지향형, 경제지향형, 사회지향형, 가족지향형, 보수지향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대구지역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김보연과 류숙희(2000)는 라이프스타일을 경제지향성, 외모지향성, 가정지향성, 자신감지향성, 여가활용성, 사교활동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주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생활양식은 인간이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행위체계로서,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주택 속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주생활과 관련된 태도, 관심, 의견 등을 의미한다.

최목화(1991)는 주생활 양식을 가구사용, 공간사용, 난방방식을 중심으로 현재 주거생활 조건에 따라 채래식 기본생활유형, 채래식 가족중심생활유형, 절충식 가족중심생활유형, 현대식 기본생활유형, 현대식 사교여가생활유형으로 분류하여 현대 주생활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파악하였다. 박영순 등(1994)은 주생활양식을 정리정돈형, 장식추구형, 자기표현형, 실용추구형, 유행추구형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거주자 특성인 아파트 평수와 가구주의

연령이 생활양식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심미영과 고경필(1996)은 주생활양식을 장식추구형, 자기표현형, 내부기능성형, 실용성형과 과시성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주생활양식과 주택구매 시 의사결정 평가기준과 이에 미치는 영향력도 분석하였다. 허영숙과 조성희(1997)는 주생활양식을 편리추구형, 개성중시형, 보수관행형, 전통격식형, 개인생활중시형, 현대합리형, 전통가족단란형, 현대가족단란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김미희와 이유미(1998)는 현대적 도시생활형, 자연 이웃환경중시형, 과시적 감성추구형, 소극적 개인생활형, 전통적 관습추구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라이프스타일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생들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다양한 영상매체 또는 컴퓨터와 더불어 살면서도 개성을 중시하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하였다.

## 2. 주거만족도

주거만족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주거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활만족이나 생활의 질과 같은 더 큰 개념의 유용한 예측 변인이 되어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다. 주거만족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최초 언급한 사람은 Fried와 Gleicher(1961, 오온미, 박경옥, 2000 재인용)로서,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개념과 행태 가운데에서 거주자의 만족도가 배관과 같은 구조특성보다는 주거의 질을 평가하는데 더욱 적합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주거만족도를 주요개념으로 하여 기초적인 환경-형태의 이론을 펴 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거만족도는 주거환경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주거만족도 개념의 유용성은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평가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요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주거만족의 개념을 오온미와 박경옥(2000)은 주거욕구 충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또한 특별한 면에 대한 부분적 분석이 아니라 전체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개인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거만족도란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며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apoport(1975, 꺾인숙, 1986 재인용)는 주거가 인간에 의해 구성된 환경으로서 사회적, 심리적 주거만족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개인의 행동, 라이프스타일,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각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 즉, 물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리적 요인에는 주택의 유형, 주택규모, 1인당 주거면적, 주택의 물리적인 시설설비 수준, 방수, 주택의 결함여부, 외관, 위생시설, 편의시설, 옥외 공간 및 녹지 등으로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포함되며, 주택의 물리적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주거만족도도 높았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에는 가족구성형태, 가족생활주기, 사회적 신분, 주택가격, 임대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유지관리,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 등이 있다. 이는 주거만족도가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평가 될 수 없고 개인과 가족, 이웃의 요인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리적 요인에는 거주자의 태도, 주거가치관, 과밀, 프라이버시, 스트레스, 거주기간, 가족관계 등이 있다(김유일, 1988; 김경수, 1992; 박남희, 1995).

Morris와 Winter(1977)는 주거만족에 규범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즉, 각 가정은 주택의 사회적·문화적 규범과 가정의 규범이라는 두 가지 수준에서 그 충족여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의 존재여부는 개인의 주택기준과 주택유형이 부여하는 보상을 규명하는 데 달려있으며,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한 가정이 수용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에 대응할 수 있다고 인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범적 요소는 한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닌 규범을 이루고 있는 가치관, 목표 등에 의해 변화하는 역동성을 지니게 된다.

주거환경의 물리적인 특성은 거주자들의 문화적, 개인적 인자를 통해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만족도는 단순히 물리적 특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형태, 심리적 요소 및 기능적, 사회경제적인 환경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이주택, 1994).

주부를 대상으로 한 차성란(1985)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아파트에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의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주거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파악 될 수 있으며, 주거만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성취가 클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만족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주거만족의 인식은 역동적 과정이므로 정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거만족의 측정은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경험으로서 보조적인 지침과 통찰력만을 제시할 뿐이다.

청소년의 주거만족에 관한 강송희(1990)의 연구에서는 주거변인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가 주택일 경우, 근린환경 변인에서는 거주지가 주거지역일 때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주택 환경 만족도와 근린 환경 만족도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환경적 변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만족을 물리환경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 3. 미래 주거 환경 선호도

일반적으로 주거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개념은 규범과 선호, 열망과 기대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규범은 주거에 관한 인간 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나 법칙을 말하는 것이며, 열망은 개별 가구의 미래에 대한 욕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대와 선호는 미래의 조건이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Morris & Winter, 1977).

미래주거 환경 선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조은정(1994)은 현재의 주거상태는 현재의 주거선호라고 규정한 반면 5년 후에 이주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사하고 싶은 집의 특성'에서 미래의 주거선호를 추론하였다. 또한 주변 환경의 쾌적성, 근린관계, 범죄안전, 재해안전, 학군, 교육환경, 체육여가시설, 공공시설서비스, 지역의 사회적 위치, 주택 등의 10개 주거환경요인에 대해 '현재의 주거환경에서 개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시급한 4개를 골라 순위화하여 주거 선호를 파악하였다. 윤정애와 안옥희(1994)는 주거환경을 사회적환경, 심미적환경, 실내환경, 교통환경, 경제환경으로 나누고 있다. 윤복자와 홍선경(1999)은 주거 환경을 자연·근린환경, 주택의 심미성·물리적 계획, 편리성·안정성, 경제성·입지성으로 나누어 남녀 대학생간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연·근린환경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요시하였고 편리성·안정성, 입지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중시하였다. 광경숙과 김진영(2001)은 주거환경을 거주형태, 주택설비, 주택구조, 사회적 주거환경, 물리적 주거환경으로 나누었다. 김정희(2002)는 주거환경을 내부구조 및 설비, 입지성 및 쾌적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회적, 사생활보장, 심미성 및 개성, 건강 및 안정성의 7개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itus(1972)는 학교 안과 학교 밖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요구와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위치가 가장 중요한 주거요구였다. 학교 밖에 거주하는 학

생들은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그들의 주거선택에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Sommer(1983)의 학교 안의 임대료가 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임대료가 싸다면 주거서비스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역시 임대료가 싼 집을 선호했다. 즉, 임대료가 주거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과 관련하여 윤정애와 안옥희(1994)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51.4%가 독립주택을, 41.0%가 공동주택을 미래 주거로 선호하였다. 그중 남학생은 독립주택을, 여학생은 공동주택을 더욱 선호하고 있어 남녀간에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김상희와 신철성(2002)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미래 주거선호 의식에서 환경설비와 편리성 요인의 점수가 높았으며, 미래의 희망주거는 조사대상자의 6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27.6%)보다는 단독주택(43.3%)을 선호하고 있었다.

김혜정(1996)의 연구에서 신세대들은 주거지역으로는 서울이나 서울 근교를 원했고, 소음이 적은 곳과 전망이 좋은 주거환경을 원했다. 또한 정미란 등(1997)의 연구에서 '시골보다 대도시에 살고 싶다'와 '시가지와 교외에 살고 싶다'가 각각 46%, 59.8%로 나타나 주택의 인접환경으로서 자연적 환경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집을 '가족의 단란 장소'와 '심신 휴양 장소'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윤복자와 홍선경(1999)의 연구에서 신세대는 인간적이고 개성적인 소규모 주거단지를 선호하였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객관적인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고급주택과 시설, 개방적 구조와 친숙한 이웃, 여가시설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고 폐쇄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성장할 때 높은 수준으로 생활하였다고 생각할수록 고급 생활환경을 선호하며 공동 사용보다 개인 소유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신화경(2004)의 연구에서는 도심에서 떨어진 깨끗하고 넓은 신도시를 가장 선호하였고, 아파트 층수는 저층을, 주택규모는 현 주택보다 큰 규모를 선호하였다. 또한 남향의 주택을 선호하였고,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거실과 안방이라고 하였다. 임희경(2005)의 연구에서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주거지로 교통수단이 편리한 도시 교외지역과 신 주택지구를 선호하였고, 주거선택 시 남학생은 환경과 같은 외적요인에 대해 관심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주생활과 관련된 내부의 실리적이며 경제적인 조건을 중시하고 있었다.

심은실(1996)의 연구에서 미혼 남녀 80.2%가 원룸을 선호하고 그 유형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많

았다. 또한 선호하는 주거특성은 내부구조 및 설비에 관한 것들로 개방감, 변화 있는 공간의 창조, 좁은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충분한 수납공간 등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는 사생활 보호, 입지조건, 경제적 요인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 주거환경 선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대학생으로 성별, 학년, 전공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조사 일시는 2004년 5월10일~12일에 학생 5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후에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6월1일~6월10일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라이프스타일은 김보연과 류숙희(2000), 임정빈과 박선영(1989)의 연구를, 주거만족도는 김정희(2002)의 연구를, 주거환경 선호도는 윤복자와 홍선경(1999), 정미란 등(1997)의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을, '그렇다'에 4점을, '그저 그렇다'에 3점을, '그렇지 않다'에 2점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각각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질문지는 600부를 배부하여 그중 568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4.7%), 부실 기재한 것을 제외한 총 512부를 실제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1.5 for Window 통계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값,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51.2%, 여학생 48.8% 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27.3%로 타 학년 보다 약간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각각 46.3%, 51.4%로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이 27.8%로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0.4%로 취업주부 보다 약간 많았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300만원 미만이 39.1%로 많았고, 주택형태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형태는 자가의 주택 거주자가 50.8%로 약간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262	51.2	
	여	250	48.8	
학년	1학년	113	22.1	
	2학년	127	24.8	
	3학년	132	25.8	
	4학년	140	27.3	
전공	인문계열	240	46.9	
	자연계열	78	15.2	
	이공계열	194	37.9	
부모 학력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66	12.9
		고졸	237	46.3
		대졸이상	209	40.8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9	19.3
		고졸	263	51.4
		대졸이상	150	29.3
부모 직업	아버지 직업	전문직	93	18.2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142	27.8
		기술직 및 생산직	115	22.5
		판매 및 서비스직	63	12.3
		농업 및 기타	99	19.3
	어머니 직업	취업주부	254	49.6
		전업주부	258	50.4
	가족 월평균 수입	200만원이하	102	19.9
		200~300만원 미만	200	39.1
		300~400만원 미만	98	19.1
400만원 이상		112	22.9	
주택형태	단독주택	179	35.0	
	아파트	272	53.1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61	11.9	
거주형태	자가	252	49.2	
	자가 외	260	50.8	
계		512	100.0	

## 2.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 한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 6개를 선택하여 각각 외모지향성, 디지털지향성, 자신감지향성, 경제지향성, 가정지향성, 여가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의 평균은 3.20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그중 자신감지향성과 가정지향성이 3.57로 높았으며 디지털지향성이 2.95로 가장 낮았다.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모지향성과 가정지향성은 여학생이, 디지털지향성은 남학생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라이프스타일에서 오는 전형적인 성별의 차이로 생각된다. 학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디지털지향성은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높았다. 전공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높게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지향성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이 높았으며 디지털지향성은 이공계열 학생이, 경제지향성과 외모지향성은 인문계열 학생이 다른 계열 학생보다 높았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고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성과 자신감지향성, 경제지향성, 가정지향성은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상에서 높았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도 평균적으로 대졸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성은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자신감지향성과 여가지향성은 대졸이상에서 높았다.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문직에서 높았다. 외모지향성, 경제지향성과 여가지향성은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에서 높았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가지향성은 어머니가 취업주부에서 높았다.

가족의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00만 원 이상 월수입에서 높았다. 즉, 여가지향성은 가구의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이상에서, 외모지향성은 월평균수입이 200만 원 이상에서, 디지털지향성은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 에서 높았다. 가구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외적인 미에 비중을 많이 두며 여가도 즐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형태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정지향성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높았다.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가주택에서 높았다. 즉, 여가지향성은 자가주택에서 높아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

보다 여가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자신감지향성과 가정지향성이 높아 건전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결과는 임정빈 외(1988)의 연구에서 여대생은 학력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적극형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유행추구형은 감소하였다는 연구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4학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 대비하여 여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전한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질문명이 고도화 될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편의주의와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못한 대학생은 소비형태를 자신의 환경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3. 대학생의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이 5개이었으므로 5개의 요인을 선택하여 근린시설이용, 주택구조, 주택설비, 주거안전, 주택 외적관계로 나누었다. 전체적으로 평균값은 3.50 으로 중간수준보다 높았고 그중 주택설비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근린시설이 3.33으로 낮았다.

이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즉, 주택구조와 주택설비, 주택 외적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높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높았다. 즉, 주택구조와 근린시설, 주택설비, 주거안전, 주택 외적관계 모두 1학년이 높았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졸이상 학력에서 높았다. 즉, 근린시설, 주택설비와 주거안전은 고졸이상 학력에서, 주택 외적관계와 주택구조는 대졸이상 학력에서 높았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 영역이 대졸이상 학력에서 높았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는 높았다.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문직에서 높았다. 즉, 주택구조는 전문직에서, 주택 외적관계와 근린시설, 주택설비, 주거안전은 전문직과 행정관리 및 사무직에서 높았다. 어머니 직업에 따라서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취업주부보다 취업주부에서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주택구조, 주택설비, 주택 외적관계는 취업주부에서 높았다.

<표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구분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적변인		N	외모 지향성	디지털 지향성	자신감 지향성	경제 지향성	가정 지향성	여가 지향성	평균
성별	남	262	2.86	3.18	3.54	3.12	3.45	3.08	3.21
	여	250	3.07	2.72	3.59	3.17	3.68	2.97	3.20
	t - Value			3.51***	-6.57***	.88	.64	3.09**	-1.71
학년	1학년	113	3.01	3.05ab	3.62	3.06	3.60	3.04	3.23
	2학년	127	2.94	2.84b	3.52	3.15	3.55	2.90	3.15
	3학년	132	2.99	2.86ab	3.59	3.16	3.64	3.02	3.21
	4학년	140	2.92	3.06a	3.54	3.19	3.49	3.12	3.22
	F - Value			.57	2.70*	.74	.77	.77	2.04
전공	인문계열	240	3.03 <sup>a</sup>	2.83 <sup>b</sup>	3.55	3.27 <sup>a</sup>	3.68 <sup>a</sup>	3.01	3.23 <sup>ab</sup>
	자연계열	78	3.01 <sup>ab</sup>	3.01 <sup>ab</sup>	3.65	3.10 <sup>ab</sup>	3.75 <sup>a</sup>	2.96	3.25 <sup>a</sup>
	이공계열	194	2.86 <sup>b</sup>	3.08 <sup>a</sup>	3.55	3.01 <sup>b</sup>	3.35 <sup>b</sup>	3.06	3.15 <sup>b</sup>
	F - Value			3.80*	5.32**	.95	7.10**	11.33***	.52
부학력	중졸이하	66	2.58b	2.96	3.42 <sup>b</sup>	3.03 <sup>b</sup>	3.27 <sup>b</sup>	2.86	3.04 <sup>b</sup>
	고졸	237	2.97a	2.99	3.53 <sup>ab</sup>	3.13 <sup>ab</sup>	3.59 <sup>a</sup>	3.00	3.19 <sup>a</sup>
	대졸이상	209	3.07a	2.89	3.65 <sup>a</sup>	3.28 <sup>a</sup>	3.63 <sup>a</sup>	3.10	3.27 <sup>a</sup>
	F - Value			13.91***	.81	4.89**	6.50**	5.10**	2.75
모학력	중졸이하	99	2.64 <sup>b</sup>	3.06	3.49 <sup>b</sup>	3.09	3.49	2.89 <sup>b</sup>	3.11 <sup>b</sup>
	고졸	263	3.04 <sup>a</sup>	2.95	3.52 <sup>b</sup>	3.11	3.52	2.99 <sup>b</sup>	3.19 <sup>b</sup>
	대졸이상	150	3.04 <sup>a</sup>	2.87	3.69 <sup>a</sup>	3.24	3.70	3.17 <sup>a</sup>	3.29 <sup>a</sup>
	F - Value			14.33***	1.53	5.15**	1.77	2.65	4.96**
부직업	전문직	93	3.18 <sup>a</sup>	2.93	3.70	3.44 <sup>a</sup>	3.78	3.36 <sup>a</sup>	3.40 <sup>a</sup>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142	2.96 <sup>b</sup>	2.96	3.53	2.98 <sup>b</sup>	3.55	2.96 <sup>b</sup>	3.16 <sup>b</sup>
	기술직 및 생산직	115	2.91 <sup>b</sup>	3.03	3.52	3.16 <sup>b</sup>	3.54	2.99 <sup>b</sup>	3.19 <sup>b</sup>
	판매 및 서비스직	63	2.94 <sup>b</sup>	2.90	3.49	3.12 <sup>b</sup>	3.53	2.99 <sup>b</sup>	3.16 <sup>b</sup>
	농업 및 기타	99	2.84 <sup>b</sup>	2.91	3.58	3.10 <sup>b</sup>	3.44	2.84 <sup>b</sup>	3.12 <sup>b</sup>
	F - Value			3.56**	.41	1.92	5.84***	2.15	7.07***
모직업	취업주부	254	2.99	2.88	3.62	3.09	3.66	3.10	3.22
	전업주부	258	2.94	3.02	3.52	3.20	3.47	2.95	3.18
	t - Value			.85	-1.81	1.93	-1.54	2.58	2.38*
가족 월평균 수입	200만원이하	102	2.78 <sup>b</sup>	2.95 <sup>ab</sup>	3.41	3.16	3.47	2.79 <sup>c</sup>	3.09 <sup>b</sup>
	200~300만원미만	200	2.96 <sup>a</sup>	3.09 <sup>a</sup>	3.57	3.10	3.56	2.97 <sup>bc</sup>	3.21 <sup>a</sup>
	300~400만원미만	98	3.00 <sup>a</sup>	2.78 <sup>b</sup>	3.68	3.27	3.55	3.15 <sup>ab</sup>	3.24 <sup>a</sup>
	400만원이상	112	3.11 <sup>a</sup>	2.85 <sup>b</sup>	3.60	3.09	3.68	3.21 <sup>a</sup>	3.26 <sup>a</sup>
	F - Value			4.49**	3.97*	3.70	1.40	1.13	7.28***
주택 형태	단독주택	179	2.91	2.97	3.54	3.15	3.62 <sup>a</sup>	3.00	3.20
	아파트	272	3.01	2.91	3.59	3.15	3.59 <sup>a</sup>	3.04	3.22
	연립및다세대주택	61	2.91	3.06	3.52	3.10	3.32 <sup>b</sup>	3.00	3.15
	F - Value			1.36	.92	.56	.14	3.06*	.18
거주 형태	자가	252	2.98	3.00	3.58	3.20	3.64	3.15	3.26
	자가 외	260	2.95	2.90	3.55	3.09	3.50	2.90	3.15
	t - Value			.60	1.30	.52		1.89	3.87***
전체평균			2.96	2.95	3.57	3.15	3.57	3.02	3.20

\* p<.05 \*\*p<.01 \*\*\*p<.001

문자 ab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분석한 결과(p<.05),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lt;표 3&gt;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거만족도

구분		주거만족						
인구통계적변인		N	근린시설	주택구조	주택설비	주거안전	외적관계	평균
성별	남	262	3.44	3.76	3.22	3.46	3.28	3.43
	여	250	3.53	3.94	3.44	3.50	3.45	3.57
t Value			1.33	2.89**	3.22**	.68	2.81*	2.99**
학년	1학년	113	3.68 <sup>a</sup>	4.03 <sup>a</sup>	3.51 <sup>a</sup>	3.66 <sup>a</sup>	3.56 <sup>a</sup>	3.69 <sup>a</sup>
	2학년	127	3.39 <sup>b</sup>	3.71 <sup>b</sup>	3.20 <sup>b</sup>	3.37 <sup>b</sup>	3.29 <sup>b</sup>	3.39 <sup>b</sup>
	3학년	132	3.46 <sup>b</sup>	3.79 <sup>b</sup>	3.30 <sup>b</sup>	3.43 <sup>b</sup>	3.31 <sup>b</sup>	3.46 <sup>b</sup>
	4학년	140	3.43 <sup>b</sup>	3.87 <sup>b</sup>	3.30 <sup>b</sup>	3.48 <sup>b</sup>	3.32 <sup>b</sup>	3.48 <sup>b</sup>
F - Value			3.34*	4.36**	3.11*	3.31*	3.77*	6.41***
전공	인문계열	240	3.31	3.47	3.86	3.44	3.41	3.50 <sup>b</sup>
	자연계열	78	3.47	3.59	3.99	3.67	3.45	3.63 <sup>a</sup>
	이공계열	194	3.29	3.44	3.77	3.48	3.27	3.45 <sup>b</sup>
F - Value			1.50	1.20	2.68	2.82	2.79	3.20*
부학력	중졸이하	66	2.84 <sup>b</sup>	3.38 <sup>b</sup>	3.64 <sup>b</sup>	3.23 <sup>b</sup>	3.18 <sup>b</sup>	3.25 <sup>c</sup>
	고졸	237	3.34 <sup>a</sup>	3.38 <sup>b</sup>	3.82 <sup>a</sup>	3.46 <sup>a</sup>	3.28 <sup>b</sup>	3.46 <sup>b</sup>
	대졸이상	209	3.47 <sup>a</sup>	3.63 <sup>a</sup>	3.94 <sup>a</sup>	3.59 <sup>a</sup>	3.51 <sup>a</sup>	3.63 <sup>a</sup>
F - Value			16.55***	6.99**	4.72**	6.42**	8.38***	13.87***
모학력	중졸이하	99	3.05 <sup>c</sup>	3.49 <sup>b</sup>	3.68 <sup>b</sup>	3.29 <sup>b</sup>	3.35 <sup>b</sup>	3.37 <sup>b</sup>
	고졸	263	3.28 <sup>b</sup>	3.32 <sup>b</sup>	3.82 <sup>b</sup>	3.43 <sup>b</sup>	3.26 <sup>b</sup>	3.42 <sup>b</sup>
	대졸이상	150	3.58 <sup>a</sup>	3.74 <sup>a</sup>	3.99 <sup>a</sup>	3.71 <sup>a</sup>	3.55 <sup>a</sup>	3.72 <sup>a</sup>
F - Value			15.18***	16.13***	5.66**	10.37***	8.29***	17.85***
부직업	전문직	93	3.55 <sup>a</sup>	3.73 <sup>a</sup>	4.00 <sup>a</sup>	3.66 <sup>a</sup>	3.59 <sup>a</sup>	3.71 <sup>a</sup>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142	3.33 <sup>ab</sup>	3.46 <sup>b</sup>	3.89 <sup>ab</sup>	3.53 <sup>ab</sup>	3.42 <sup>ab</sup>	3.53 <sup>b</sup>
	기술직 및 생산직	115	3.21 <sup>b</sup>	3.44 <sup>b</sup>	3.69 <sup>b</sup>	3.34 <sup>b</sup>	3.19 <sup>c</sup>	3.38 <sup>b</sup>
	판매 및 서비스직	63	3.29 <sup>b</sup>	3.27 <sup>b</sup>	3.87 <sup>ab</sup>	3.41 <sup>b</sup>	3.27 <sup>bc</sup>	3.42 <sup>b</sup>
	농업 및 기타	99	3.27 <sup>b</sup>	3.44 <sup>b</sup>	3.81 <sup>ab</sup>	3.48 <sup>ab</sup>	3.31 <sup>bc</sup>	3.46 <sup>b</sup>
F - Value			2.56*	4.09**	2.79*	2.57*	4.82**	5.47***
모직업	취업주부	254	3.54	3.91	3.41	3.50	3.43	3.56
	전업주부	258	3.44	3.78	3.24	3.46	3.30	3.44
t - Value			1.43	2.07*	2.46*	.72	2.05*	2.39*
가족 월평균 수입	200만원이하	102	3.16 <sup>b</sup>	3.64 <sup>c</sup>	3.14 <sup>b</sup>	3.33 <sup>b</sup>	3.19 <sup>c</sup>	3.29 <sup>c</sup>
	200~300만원미만	200	3.49 <sup>a</sup>	3.79 <sup>bc</sup>	3.26 <sup>b</sup>	3.42 <sup>b</sup>	3.27 <sup>bc</sup>	3.45 <sup>b</sup>
	300~400만원미만	98	3.62 <sup>a</sup>	3.93 <sup>ab</sup>	3.27 <sup>b</sup>	3.48 <sup>b</sup>	3.45 <sup>ab</sup>	3.55 <sup>b</sup>
	400만원 이상	112	3.66 <sup>a</sup>	4.05 <sup>a</sup>	3.67 <sup>a</sup>	3.72 <sup>a</sup>	3.58 <sup>a</sup>	3.74 <sup>a</sup>
F - Value			9.42***	6.61***	10.05***	5.86**	7.16***	13.47***
주택 형태	단독주택	179	3.08 <sup>a</sup>	3.53 <sup>a</sup>	3.84 <sup>a</sup>	3.49 <sup>a</sup>	3.40 <sup>a</sup>	3.47 <sup>a</sup>
	아파트	272	3.51 <sup>b</sup>	3.53 <sup>a</sup>	3.91 <sup>a</sup>	3.54 <sup>a</sup>	3.44 <sup>a</sup>	3.59 <sup>a</sup>
	연립 및 다세대주택	61	3.22 <sup>a</sup>	3.11 <sup>b</sup>	3.59 <sup>b</sup>	3.23 <sup>b</sup>	2.92 <sup>b</sup>	3.22 <sup>b</sup>
F - Value			17.70***	8.59***	4.73**	4.17*	14.26***	12.24***
거주 형태	자가	252	3.38	3.52	3.85	3.49	3.36	3.52
	자가 외	260	3.27	3.44	3.84	3.49	3.36	3.48
t - Value			1.48	1.30	.04	-.06	-.04	.76
전체평균			3.33	3.48	3.85	3.49	3.36	3.50

\* p&lt;.05 \*\*p&lt;.01 \*\*\*p&lt;.001

문자 ab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분석한 결과(p&lt;.05),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가족의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월평균 수입 400만 원 이상에서 높았다. 즉, 주택설비와 주거안전은 월 평균수입 400만 원 이상에서 높았고, 근린시설, 주택구조, 주택 외적관계는 월 평균수입 300만 원 이상에서 높았다. 가족의 월 평균수입이 많을 때 주거만족도는 높았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높았다. 즉, 주택구조와 주택 외적관계, 주택설비, 주거안전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높았다. 그러나 근린시설에서는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서 높았다.

이상에서 볼 때 대학생들의 주거만족도는 주택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것은 경제적 안정이 곧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김정희(200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학년, 전공계열, 아버지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주거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 4. 대학생의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

대학생의 미래 주거 환경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고유치 1 이상의 요인 6개가 선택되었다. 이를 주택의 환경과 설비, 복지 및 위생설비, 이웃과의 관계, 의료 및 공공시설, 주거비용, 자연경관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의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의 전체 평균은 3.83으로 약간 높았으며 그중 환경과 설비가 4.22로 가장 높았고 복지와 위생이 3.52로 가장 낮았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환경·설비와 복지·위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1학년과 4학년이 높았다. 환경·설비와 이웃관계는 1·3·4학년이, 복지·위생은 1학년과 4학년이, 자연경관은 1학년이 높았다. 전공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나 자연계열 학생들이 높았다. 주거비용과 자연경관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환경·설비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이웃관계와 주거비용에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상에서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고졸이상에서 높았다.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모든 직업에서 농업외 기타 직업 보다 높았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취업주부에서 높았다. 즉, 주거비용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어머니가 취업주부인 경우에 높았다.

가족의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형태에 따라서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높았다. 이웃관계와 주거비용 측면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은 주거환경과 설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았고, 1학년 자연계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주부 일 때,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사는 대학생들에게서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주거환경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은 주택의 환경과 설비측면이었다. 즉, 주택의 구조적 시설이나 생활에 있어 편리함을 추구 할 수 있는 측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윤복자(1997)의 대학생들이 주거환경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중 녹지공원이 풍부하고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 정비가 잘 된 곳을 미래에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평가한 내용과 부분적으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 5.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주거만족도와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와의 상호관계

##### 1)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만족도와의 관계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디지털지향형은 주거안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신감지향형은 주거만족도의 전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감지향형은 주거의 모든 영역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주택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경제지향형은 주택 외적관계와 주택설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가정지향형은 주거만족도의 전 영역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라이프스타일이 가정지향형인 학생은 주거만족도의 모든 측면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여가지향형은

&lt;표 4&gt;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미래주거환경 선호도

구분			미래주거 환경선호도						
인구통계적변인		N	환경·설비	복지·위생	이웃관계	의료·공공	주거비용	자연경관	평균
성별	남	262	4.13	3.44	3.63	3.66	3.82	3.90	3.76
	여	250	4.32	3.61	3.72	3.76	3.95	4.07	3.90
t - Value			4.25***	3.24**	1.59	1.94	2.45	2.82	3.92***
학년	1학년	113	4.29 <sup>a</sup>	3.65 <sup>a</sup>	3.76 <sup>a</sup>	3.80	3.95	4.17 <sup>a</sup>	3.93 <sup>a</sup>
	2학년	127	4.10 <sup>b</sup>	3.38 <sup>b</sup>	3.53 <sup>b</sup>	3.61	3.80	3.96 <sup>b</sup>	3.73 <sup>c</sup>
	3학년	132	4.24 <sup>a</sup>	3.50 <sup>ab</sup>	3.71 <sup>a</sup>	3.72	3.91	3.88 <sup>b</sup>	3.83 <sup>bc</sup>
	4학년	140	4.26 <sup>a</sup>	3.58 <sup>a</sup>	3.69 <sup>a</sup>	3.71	3.88	3.96 <sup>b</sup>	3.85 <sup>ab</sup>
F - Value			3.17*	4.63**	3.05*	2.01	1.31	4.47**	5.04**
전공	인문계열	240	4.29 <sup>a</sup>	3.52	3.70	3.73	3.92 <sup>b</sup>	3.94 <sup>b</sup>	3.85 <sup>b</sup>
	자연계열	78	4.27 <sup>a</sup>	3.63	3.73	3.81	4.09 <sup>a</sup>	4.17 <sup>a</sup>	3.95 <sup>a</sup>
	이공계열	194	4.12 <sup>b</sup>	3.48	3.60	3.64	3.75 <sup>c</sup>	3.96 <sup>b</sup>	3.76 <sup>b</sup>
F - Value			6.01**	1.82	1.82	2.79	9.55***	3.73*	6.64***
부학력	중졸이하	66	4.24	3.49	3.37 <sup>b</sup>	3.77	3.69 <sup>b</sup>	3.98	3.76
	고졸	237	4.19	3.53	3.69 <sup>a</sup>	3.69	3.91 <sup>a</sup>	4.01	3.84
	대졸이상	209	4.25	3.53	3.74 <sup>a</sup>	3.70	3.91 <sup>a</sup>	3.95	3.85
F - Value			.83	.09	9.38***	.45	3.74*	.41	1.26
모학력	중졸이하	99	4.21	3.46	3.52 <sup>b</sup>	3.79	3.79	4.02	3.80
	고졸	263	4.22	3.53	3.67 <sup>a</sup>	3.66	3.89	3.98	3.83
	대졸이상	150	4.23	3.56	3.76 <sup>a</sup>	3.74	3.92	3.96	3.86
F - Value			.04	.89	4.52*	2.21	1.29	.25	.70
부직업	전문직	93	4.26	3.62	3.83 <sup>a</sup>	3.79	4.00	3.98	3.91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142	4.24	3.48	3.68 <sup>ab</sup>	3.69	3.89	4.02	3.83
	기술직 및 생산직	115	4.21	3.45	3.69 <sup>ab</sup>	3.66	3.84	4.05	3.82
	판매 및 서비스직	63	4.28	3.54	3.64 <sup>ab</sup>	3.63	3.91	3.88	3.81
	농업 및 기타	99	4.13	3.57	3.51 <sup>b</sup>	3.77	3.78	3.92	3.78
F - Value			1.04	1.48	3.26*	1.24	1.65	1.06	1.34
모직업	취업주부	254	4.28	3.60	3.75	3.81	3.91	4.05	3.90
	전업주부	258	4.16	3.45	3.60	3.61	3.86	3.92	3.77
t - Value			2.62**	2.87**	2.78**	3.90***	.89	2.28*	3.71***
가족의 월평균 수입	200만원이하	102	4.22	3.51	3.60	3.81	3.82	3.92	3.82
	200~300만원미만	200	4.17	3.49	3.66	3.63	3.89	4.00	3.81
	300~400만원미만	98	4.20	3.55	3.60	3.70	3.88	3.94	3.81
	400만원이상	112	4.33	3.58	3.81	3.74	3.92	4.05	3.91
F - Value			2.36	.73	2.75	2.28	.50	.90	1.62
주택 형태	단독주택	179	4.18 <sup>ab</sup>	3.49 <sup>ab</sup>	3.60	3.69 <sup>a</sup>	3.88	3.98 <sup>a</sup>	3.80 <sup>ab</sup>
	아파트	272	4.28 <sup>a</sup>	3.58 <sup>a</sup>	3.73	3.76 <sup>a</sup>	3.90	4.03 <sup>a</sup>	3.88 <sup>a</sup>
	연립 및 다세대주택	61	4.09 <sup>b</sup>	3.38 <sup>b</sup>	3.61	3.53 <sup>b</sup>	3.80	3.80 <sup>b</sup>	3.70 <sup>b</sup>
F - Value			4.28*	3.15*	3.01	3.75*	.639	3.21*	5.43**
거주 형태	자가	252	4.26	3.55	3.71	3.75	3.92	3.97	3.86
	자가 외	260	4.18	3.49	3.63	3.67	3.85	4.00	3.81
t - Value			1.63	1.05	1.44	1.43	1.24	-.59	1.46
전체평균			4.22	3.52	3.67	3.71	3.88	3.98	3.83

\* p&lt;.05 \*\*p&lt;.01 \*\*\*p&lt;.001

문자 ab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분석한 결과(p&lt;.05),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5>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구분		주거만족도				
		근린시설	주택구조	주택설비	주거안전	주택의 외적관계
라이프스타일	외모지향	.005	.057	.031	.077	.078
	디지털지향	.009	.086	-.063	.089*	-.011
	자신감지향	.122**	.161**	.216**	.113*	.175**
	경제지향	-.045	.050	.090*	.066	.114**
	가정지향	.173**	.140**	.200**	.113*	.164**
	여가지향	.077	.087*	.142**	.059	.120**

\*p<.05 \*\*p<.01

주택설비, 주택 외적관계와 주택구조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라이프스타일이 자신감지향성과 가정지향성의 학생들이 주거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라이프스타일과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와 관계

라이프스타일과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이 정적상관과 부적상관 두 가지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라이프스타일에서 외모지향형은 이웃관계측면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디지털지향형은 의료·공공측면과 자연경관측면, 주거비용측면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라이프스타일이 디지털지향형은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주거비용측면, 의료·공공측면, 자연경관측면의 미래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자신감지향형은 미래주거선호도의 모든 측면 즉, 환경·설비, 복지·위생, 이웃관계, 의료·공공, 주거비용, 자연경관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의료·공공측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즉, 라이프스타일이 자신감지향형은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주거선호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지향형은 의료·공공측면과 자연경관측면에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가정지향형은 주거비용 측면을 제외한 전영역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여가지향형은 복지·위생측면, 이웃관계측면, 의료·공공측면과 자연경관측면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라이프스타일이 외모지향형과 디지털지향형은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주거 환경 선호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자신감지향형이나 가정지향형은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주거 선호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주거만족도와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와의 상관관계

주거만족도와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7>에서와 같이 모든 변인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거 만족도에서 근린시설과 주택구조, 주택 외적관계는 미래주거선호도의 모든 측면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주거만족도와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의 모든 측면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은 현재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미래주거환경의 선호도와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대학생의 주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던 라이프스타일, 주거만족도, 미래주거 환경선호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 중 주거만족도와 미래주거환경선호도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라이프스타일과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와의 상관관계

구분		미래주거 환경선호도					
		환경·설비	복지·위생	이웃관계	의료·공공	주거비용	자연경관
라이프스타일	외모지향	-.025	.069	.197**	-.045	.002	-.015
	디지털지향	-.186	-.044	.011	-.129**	-.113*	-.229**
	자신감지향	.171**	.173**	.179**	.222**	.147**	.193**
	경제지향	.087	.027	.086	.110*	.022	.095*
	가정지향	.165**	.118**	.173**	.190**	.048	.090*
	여가지향	.014	.189**	.152**	.185**	-.028	.092*

〈표 7〉 주거만족도와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의 상관관계

구분		미래주거 환경선호도					
		환경·설비	복지·위생	이웃관계	의료·공공	주거비용	자연경관
주 거 만 족 도	근린시설	.141**	.244**	.181**	.238**	.186**	.122**
	주택구조	.197**	.232**	.139**	.227**	.126**	.186**
	주택설비	.264**	.147**	.104*	.206**	.145**	.251**
	주거안전	.160**	.214**	.129**	.086	.169**	.109*
	외적관계	.181**	.129**	.135**	.202**	.125**	.137**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주거만족도,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 또한 이들 서로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만족도를 이해하고 미래의 주거환경 선호도를 알아봄으로써 미래주거 양상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주거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자신감지향성과 가정지향성이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학생이, 부모학력 고졸이상, 아버지직업이 전문직에서, 월수입 300만원이상, 자가주택에 사는 학생들이 라이프스타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둘째, 대학생들의 주거만족도는 주택설비측면에서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1학년 자연계열 여학생이, 부모학력이 대졸이상,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이고 어머니는 취업주부이며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는 학생의 주거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대학생들의 미래 주거환경선호도는 환경·설비측면과 자연경관을 높게 선호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1학년 자연계열 여학생이, 어머니가 취업주부이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는 학생이 미래주거환경 선호도가 높았다.

넷째,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주거만족도, 주거선호도는 대부분 유의적인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만족도는 정적상관을, 라이프스타일과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적상관을, 주거만족도와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에서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주거만족도와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는 모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라이프스타일에서는 여학생이 가정지향성과 외모지향성이 높은 반

면, 남학생은 디지털지향성이 높은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잔재하고 있는 성이분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여가지향성과 외모지향성의 라이프스타일이 발달된 것은 사회통념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물질문명이 고도화 될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편의주의적 생활과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건전한 소비형태로 자신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대학생들의 주거만족도에서 주택의 설비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주택의 설비와 안전에 비중을 둔 것은 생활의 편이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주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에서는 환경·설비와 자연경관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취업주부 일 때, 아파트에서 사는 대학생들에게서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가 50% 이상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대학생들은 좀 더 실질적이면서도 심미적인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본다.

라이프스타일, 주거만족도, 미래주거 환경선호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 중 주거만족도와 미래주거 환경선호도와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주거 만족이라는 평가가 피드백 되어 주생활이나 미래 주거환경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거주해야 할 미래 주택개발과 주택 설계 시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주제어** : 대학생, 라이프스타일, 주거만족도, 미래주거 환경선호도

## 참 고 문 헌

- 곽경숙, 김진영(2001) 중학생의 주거환경이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3(3), 161-175.
- 곽인숙 (1986)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61-182.
- 강송희 (1990) 중·고등학생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연구-부천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수 (1992)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의 프라이버시와 주거내부공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이유미 (1998) 주생활양식 유형과 공동주택내부·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2), 89-96.
- 김상희, 신철성 (2002) 경남지역 고등학생의 미래주거의식.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12(2), 231-249.
- 김유일 (1988) 주거만족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2) 청소년의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1996) 가족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 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2(11), 27-37.
- 김보현, 류숙희 (2002)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스타일 이미지 평가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2), 227-238.
- 박남희 (1995) 신도시로 이주한 거주자의 주거수준과 주거만족도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 신인호, 한성원, 황유진 (1994) 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실내 분위기 선호도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1), 17-27.
- 심미영, 고경필 (1996) 주생활양식이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구매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341-353.
- 심은실 (199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원룸주택 선호도 :청년기의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화경 (2004) 공동주택단지 내 여가시설 특성 및 거주자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89-97.
- 이부련 (1998)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과의 관계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7, 17-32.
- 이주택 (1994)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 박선영 (1989)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 7, 107-135.
- 임희경 (2005) 대학생의 생활스타일과 주거의 선호성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1047-1058.
- 오은미, 박경옥 (2000) 청소년의 주거만족도.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총론*, 3, 93-106.
- 윤복자, 윤정숙, 박영순, 김혜정, 김영주, 신인호, 이연정 (1994) 서울시 거주자의 생활양식 측정도구 개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2), 255-263.
- 윤복자, 홍선경 (1999)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기대와 선호를 통한 미래 주거행동예측. *한국학술진흥재단*, 3-40.
- 윤정애, 안옥희 (1994) 대구시 대학생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 자원문제연구논문집*, 13(1), 207-219.
- 이은경, 박은순 (1998) 신세대 라이프스타일이 신세대의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7(2), 49-61.
- 정미란, 안옥희, 김재경 (1997) 대학생의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50차 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념 논문집*, 35(6), 385.
- 정복희, 박은주 (1993) 의류점포선택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2), 207-217.
- 조은정 (1994)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성란 (1985) 가족 및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복화 (1991)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 85-97.
- 한말숙 (1990) 주거환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주거만족도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영숙, 조성희 (1997) 집합주택 계획을 위한 주생활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2), 35-46.
- Alport, GW(1965) *Pattern and Growth of personality*. Holt, Rinehart and Winstin : N.Y.
- Kegan, D(1980) Living evaluations for residential housing. *Housing and Society*, 1.
- Fitzsimmons, C. Williams, F (1974) *The Family Economy: Nature and Management of Resources*, Ann Arbor: Edward Brothers.
- Gallogly, FD(1974) Housing Decisions in Selecting a Residence in a Planned Townhouse Develop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4).
- Moore, KD(1980)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 4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Morris, EW, & Winter, M(1977) The housing we would like. *Journal of Home Economics*, 69(2), 79-88.
- Plummer, JI(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 
-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1), 33-37.
- Titus, CR(1972) Students express their housing needs and preferenc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3.
- Sommer, R(1983) The Cheapest apartments in town, *Environment and Behavior*, 5(4).
- (2007. 01. 12 접수; 2007. 04. 20 채택)